

영보이스에 혼난 호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5일 스위스 베른 슈타디온 방크도르프에서 열린 UCL 조별리그 1차전 원정 경기에서 BSC 영보이스의 카마리에게 태클을 당한 뒤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친정팀으로 돌아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이하 맨유)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패했다.

맨유는 15일 스위스 베른의 슈타디온 방크도르프에서 열린 2021-2022 UCL 조별리그 F조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영보이스(스위스)에 1-2로 역전패했다. 올 시즌 맨유의 첫 공식전 패배다.

전반 13분 만에 호날두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이후 에런 완-비사카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떠안았고 후반 추가시간에는 제시 링가드의 결정적인 패스 실수가 나오면서 승부가 뒤집혔다.

승점 3을 쌓은 영보이스는 F조 1위에, 맨유는 조 최하위(승점 0)에 자리했다.

경기 초반에는 상대를 몰아붙이던 맨유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다.

UEFA 챔스 조별리그 ... 맨유, 영보이스에 1-2 역전패 메시 없는 바르사, 유효슈팅 0개 뮌헨에 0-3 완패 '수모'

전반 13분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받은 호날두가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차 넣어 팀에 리드를 안겼다.

호날두는 이날 UCL 177번째 경기에 나서며 '레전드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와 이 대회 최다 출전 타이 기록을 썼다.

여기에 UCL 135호 골까지 터트렸다. 이 대회 최다 득점 부문에서도 역시 호날두가 1위로, 2위인 리오넬 메시(120골·파리 생제르맹)와 15골 차이가 난다.

또 36세인 호날두는 30살 이후로 이 대회에서 68경기에 출전하며 63골을 넣었는데, 그간 UCL에서 뛴 30세 이상의 어떤 선수보다 많은 득점 기록이다.

록이다.

선제골을 넣은 호날두는 전반 25분 추가 골을 노려봤으나, 그의 왼발 슛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그리고 맨유의 공격은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의 슛은 나오지 않았고 이날 맨유는 슈팅 개수에서 2개~19개로 크게 밀렸다. 유타가 집계를 시작한 2003-2004시즌 이래 UCL 138경기 중 가장 적은 슈팅을 시도했다.

전반 여러 차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0-1로 골려간 영보이스는 후반 21분 무미 은가말루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어 후반 50분에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트렸

다. 링가드가 골키퍼에게 보내려던 백패스를 조르당 시바체우가 가로채 골대 안에 꽂아 넣었다.

E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전반 34분 토마스 뮐러의 결승골이 나왔다. 뮐러의 오른발 중거리 슛이 상대 수비의 몸에 맞아 굴절된 뒤 골망을 흔들었다.

1-0으로 앞선 채 시작한 후반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멀티골을 폭발해 승기를 굳혔다.

후반 11분 자말 무시알라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레반도프스키가 재차 슈팅해 추가 골을 기록했다.

후반 40분에는 세르주 나브리의 슛이 또 골대를 강타하자 이를 잡아 왼발 슛으로 마무리, 3골 차 승리를 완성했다.

메시가 떠난 바르셀로나는 이날 유효슈팅 0개(슈팅 5개)로 영패를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황선홍 U-23 감독 선임

내년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지휘



황선홍(53·사진) 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나설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황선홍 감독을 U-23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

했다고 발표했다.

황 감독의 계약기간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본선까지다. 다만 내년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중간 평가를 거쳐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임 황 감독은 16일 오전 온라인을 통한 기자회견으로 U-23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김판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임 과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김판곤 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이 오랜 프로 감독 생활을 통해 풍부한 지도 경험이 있다"라며 "K리그와 FA컵 우승을 두 차례씩 차지하는 등 합리적인 팀 운영과 젊은 선수 육성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현역 시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4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 골잡이'다.

A매치 103경기에서 50골을 기록한 황 감독은 차범근(136경기 58골) 전 감독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A매치 득점 2위다.

2003년 3월 현역 은퇴 이후 전남 드래곤즈 2군 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은 황 감독은 전남 수석코치를 거쳐 부산 아이파크, 포항 스틸러스, FC서울,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엄지성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광주FC의 '샛별' 엄지성(사진)이 신설된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첫 주인공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올 시즌 데뷔한 광주의 신인 공격수 엄지성이 K리그 초대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엄지성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전달된다.

연맹은 신예들의 활약을 조명하기 위해 경남제약과 함께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신설했다.

'이달의 영플레이어'는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 ▲K리그 공식경기 1회 이상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돌아간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 중 해당 월에 소속팀의 총 경기 시간 중 절반 이상을 출장한 선수가 후보군이 된다. 최종 선정은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TSG(기술연구그룹) 위원들의 논의 및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8월 주인공'을 놓고 엄지성과 강현목·김태환·정상빈·박대원(이상 수원), 김진성·정한민(이상 서울), 이진용(대구) 등 총 8명의 선수가 각축을 벌였다.

광주 U18 금호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직행한 엄지성은 8월 5경기에 나와 11개의 슈팅과 4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며 광주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8월 20일 열린 26라운드 대구원정에서는 시즌 3호골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활약을 바탕으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막내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김호영 감독은 "엄지성 선수는 22세 불이 아니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장점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체력과 경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팀에 알토란같은 자원이다"고 평가했다.

엄지성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코칭스태프,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모으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아직은 신인이고 부족한 점도 많다. 더 배우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잊혀진 이름 나지완·박준표... 명예회복 나선다

나지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 박준표 "마운드에 힘 싣겠다"



'명예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가을을 달리는 이들이 있다.

KIA 타이거즈의 2021시즌이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다. 15일 롯데 자이언츠와 더블헤더를 치르면서 KIA에는 이제 31경기가 남았다.

8위 싸움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선수들, 특히 더 간절하게 한 경기 한 경기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나지완에게 올 시즌은 지우고 싶은 시즌이 됐다. '주장' 타이틀까지 맡아서 겨우내 착실하게 시즌 준비를 했지만, 초반 부진 속 부상 압초도 만났

다. 나지완은 4월 28일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재활 뒤 6월 22일 복귀했지만 마음만 급했다. 결국 옆구리 부상이 악화하면서 6월 28일 나지완은 다시 자취를 감췄고, 엔트리가 확대된 9월 1일에 서야 다시 선수단에 합류했다.

하지만 복귀 과정에서 악재가 있었다. 감을 끌어올리던 상황에서 퓨처스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계획했던 실전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1·3·4일 대타로 나와 볼넷 하나만 기록한 나지

완은 12일 NC전에서 복귀 후 4번째 타석에 섰다. 2-8로 뒤진 9회말 1사 만루에서 나지완은 병살을 치고 고개를 숙였다.

오랜 공백 속 감이 떨어졌던 나지완은 1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모처럼 선발로 출장했다. 최형우가 이날 돌체 딸을 얻으면서 경조 휴가를 갖고 터커가 지명타자, 나지완이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모처럼 감을 끌어 올릴 기회를 잡은 나지완의 첫 타석은 몸에 맞는 볼이었다.

나지완은 두 번째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만들었고,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좌중간으로 공을 보내 세 타석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주장으로 '위기의 팀'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은 수비에서도 보여졌다. 나지완은 2-5로 뒤진 5회 몸을 날리는 수비로 전준우의 안타를 다행히 추가 실점을 막았다.

시즌 전 나지완은 '팀'을 이야기했었다. 팀이 잘 돼야 주장이 빛나는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시즌을 준비했지만, 책임감은 오히려 마음을 급하게 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나지완은 간절함으로 남은 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다.

박준표에게도 2021시즌은 아쉬움의 시즌이다. 지난 시즌 박준표는 승리의 이름이었다.

손가락 부상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50경기에서 나와 1.57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1패 11홀드 6세이브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필승조로 등직한 활약이 기대됐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다.

박준표는 지난 시즌 51.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나지완

볼넷을 단 8개로 묶었지만, 올 시즌에는 31이닝 동안 17개의 볼넷을 기록했다. 몸에 맞는 볼도 8개나 남겼다.

지난 시즌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박준표는 팔꿈치 부상까지 겹쳐 제 몫을 하지 못했다. 후반기 박준표가 다시 감을 갈고 있다.

박준표는 지난 12일 NC와의 더블헤더 1·2차전에 모두 출격해 2.1이닝을 지켰다. 15일에는 롯데



박준표

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2.2이닝을 소화하면서 위기의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었다.

무엇보다 3경기에서 5이닝을 사사구 없이 마무리한 게 반갑다.

올 시즌 '주장', '필승조'로 기대를 모았지만 진한 아쉬움을 남긴 나지완과 박준표가 남은 가을 '명예 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